

기업 맥락에서 직장인 고부담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수험자 정체성 관점으로

김나희
(중앙대학교)

Kim, Nahee. 2019. Employees' high stakes English test preparation: From test tak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3, 475-499. This study aims to explore high stakes English speaking test preparation and test taker identity in a work place setting, investigating why and how employees prepare for a language test, and how their English learning and identity are influenced by test preparation activities from the test-takers' perspective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interviews, documentation, field notes and research journal for three months in work place setting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est preparation activities were focused on test strategies, including memorization of sample answers. Also, it was found that test takers' preparation practice may have come into being, negatively influencing their English speaking learning and narrative identity. The implications of the paper are to raise awareness of links between high-stakes language test, preparation activities, and test taker identity, focusing on negative effects on a test taker's actual language proficiency and identity construction.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investigating more cases of employee-test takers preparing high-stakes tests of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at work by listening to their voices.

Keywords: high stakes language test preparation, test taker identity, speaking test, global corporation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맥락에서 수험자 정체성 관점으로 직장인-수험자가 경험한 고부담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를 면담자료로 이해하는 것이다.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는 졸업과 취업 이후에도 직장 환경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의 영어 말하기 시험 결과는 채용, 진급, 인력 선발 등의 인사제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오성호, 김보영 2015). 이미 기업 환경의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는 수많은 수험자들의 중요한 시험 준비 맥락이지만 문헌에서 언급되는 시험 준비 연구는 주로 학교 맥락으로 제한되고 있다(Green 2007, Weir 2005).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환경에서 직장인들이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험 준비 활동을 하며, 이

러한 시험 준비 과정이 수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직장인-수험자 정체성 관점의 시험 준비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언어 시험 영역에서 수험자의 시험 준비는 시험의 타당도 점검, 언어 시험 사용 및 정책 결정 시 중요한 사용자 관점으로 주목되고 있다(McNamara and Roever 2006, Shohamy 2001). 이미 수많은 직장인-수험자가 존재하는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맥락에서 수험자 정체성 관점의 시험 준비 연구는 학교 이외의 고부담 언어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시험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영향을 시험 준비와 수험자에게 끼치고 있는지를 실제 사용자인 수험자 관점에서 탐색하게 한다.

수험자 정체성(test taker identity)은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맥락의 세 가지 단면에서 구성되는 데 시험 결과 가치(values), 시험 준비 활동(practice) 및 시험(준비)이 수험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다(Kim 2013).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수험자들은 시험 준비 목적에 따라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목표, 신념, 믿음 등의 시험 결과 가치를 구성하며 특정 그룹(예: 대학입시 준비생, 취업 준비생, 유학 준비생 등)을 형성한다. 시험 준비가 시작되면서 수험자들은 공유된 시험 준비 활동을 습득하게 되며,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 향상보다는 단기간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과도한 시험 기술, 전략, 모방, 암기 등의 단기 속성 시험 준비법을 학습한다(Fulcher 2010, Gulek 2003, Lumley and Stoneman 2000). 목표 점수를 얻기까지 시험 준비는 수험자 삶을 지배하고 수험자는 두려움, 불안감 혹은 실패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러한 일련의 모든 시험 준비 과정의 영향으로 수험자 정체성이 구성된다(McNamara and Roever 2006, Shohamy 2001). 대학입시 준비 환경에서 고득점 가치는 점수에 의존하는 수험자 정체성(score-mediated test taker identity)으로, 취업 준비 환경에서 스펙 관리를 위한 시험 준비 목적은 스펙 중심의 수험자 정체성(spec-mediated test taker identity)으로 강화된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학습 환경에서 공유된 가치, 신념, 목표 등의 정체성 형성이기 때문이다(Weng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험 준비는 단순히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지식, 스킬, 방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시험 준비 환경에서 공유된 시험 준비 이유에 관한 시험 결과 가치, 시험 준비 활동과 수험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의 수험자 정체성 형성으로 전제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맥락에서 수험자 정체성 관점으로 직장인-수험자가 경험한 고부담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를 탐색하며, 직장인들의 시험 준비 목적과 관련된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사용, 시험 준비 특징 그리고 수험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환경에서 직장인이 준비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은 무엇이며 시험 준비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환경에서 직장인-수험자는 어떠한 시험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셋째, 직장인-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는 영어 말하기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고부담 언어 시험과 수험자 정체성

고부담 언어 시험 영역에서 수험자 연구는 시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타당도 점검으로 주목받으며 시험의 사용, 시험 결과, 시험 준비에 대한 수험자의 자아감, 인식, 태도, 전략, 경험 등이 언급되고 있다(Green 2007, Weir 2005). 최근에는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와 정체성 연구도 논의되고 있다(Block 2009, Lazaraton and Davis 2008, Zhan and Wan 2014). Block(2009)은 영어 시험 준비 수험자의 영어 정체성(English-mediated identity)을 탐색하며 영어 사용의 결정적 경험들은 수험자의 영어 정체성으로 형성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Lazaraton과 Davis(2008)는 수험자의 언어 능숙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언어 능숙도 정체성(language proficiency identity)을 연구하였다. 수험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 능숙도가 높다고 인식하며 언어 정체성을 형성한 수험자는 말하기 시험 준비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반대로 언어 능숙도가 부족하다고 정체성을 형성한 수험자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Zhan과 Wan(2014)은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ET 4 언어 시험 준비와 수험자의 복합적인 자아 형성을 탐색하며 목표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수험자 자아, 영어 능숙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영어 학습자 자아가 서로 연계되어 복잡하고 다면적인 수험자 자아로 형성됨을 발견하였다. 김나희(2019)는 영어 내러티브(이야기)구술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탐색하였다. 내러티브 정체성은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직접 서술하면서 형성되는데(Ricoeur 2010), 모방과 전략 중심의 시험 준비는 내러티브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시험의 사용, 결과 및 시험 준비가 수험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수험자 관점에서 알기 위해 다양한 의미의 정체성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험자 정체성(test taker identity)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는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험자 정체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닌 고부담 언어 시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im, 2013). 본 연구의 배경으로 Kim(2013)은 고부담 언어 시험은 시험 준비 방법, 내용, 활동, 환경 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일련의 시험 준비 과정을 통하여 수험자 정체성(test taker identity)이 구성됨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그림 2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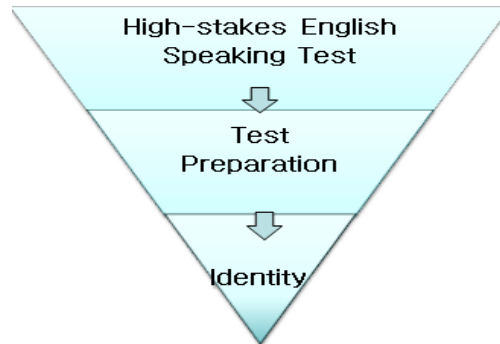


그림 1. 수험자 정체성 구성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고부담 언어 시험 맥락의 큰 틀에서 고부담 영어 말하기 시험은 시험 준비 방법, 환경 등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시험 준비 주체인 수험자는 시험 준비 활동을 지속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정체성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영어 시험은 고부담 시험(high-stakes test)으로 사용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 준비 활동은 수험자 개인 수준을 넘어서 고부담 시험 준비(high-stakes test preparation)문화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험 준비 산업은 팽창하고 있으며, 인터넷 시험 준비 강좌, 교재 및 유명 강사가 가르치는 시험 준비 프로그램은 단기간 목표 점수 획득을 경쟁적으로 홍보한다. 수험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험 준비법을 조사하며 다양한 시험 준비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고부담 시험 준비 문제는 언어발달과 창의적 사고 증진이 아닌 단기간 시험 점수 획득을 위한 과도한 시험 기술, 전략, 모방, 암기학습의 치중이다(Fulcher 2010, Lumley and Stoneman 2000). 이러한 단기 속성 시험 준비법의 성행은 특정 시험 준비법을 직업적으로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교습자 또는 교습기관의 증가를 가져왔다(Spolsky 1997). 수험자들은 짧은 시간에 목표 점수를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 교습소에서 가르치는 시험 준비법을 크게 의존하며 신뢰한다(Kim 2016).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시험 준비로 인하여 수험자의 실제적인 영어 능숙도 발달은 저해되고 있다(Kim 2017a). 지나친 시험 스킬과 전략 등에 치중한 시험 준비의 폐해로 수험자 개인 경험, 성찰과 내러티브는 사라지고 영어 말하기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수험자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과 스킬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이기 때문이다(Wenger 1998). 따라서 시험 준비는 전략, 스킬, 지식 등을 훈련하고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험자 정체성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의 기본적 개념 틀에서 다음 그림 2는 수험자 정체성 구성 단면을 설명한다. 수험자 정체성은 세 가지 단면의 시험 준비 맥락에서 형성되는데, 첫째, 시험 준비 목적과 관련된 가치(values)이다. 이것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목표(goal), 신념과 믿음(belief)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실제 시험 준비 활동(practice)과 환경(environment)에서

겪는 내적(internal) 외적(external) 갈등(challenge)과 충돌(conflict)이다.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고부담 시험 준비 영향으로 수험자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자아 상태로 예를 들면, 시험 불안감(test anxiety)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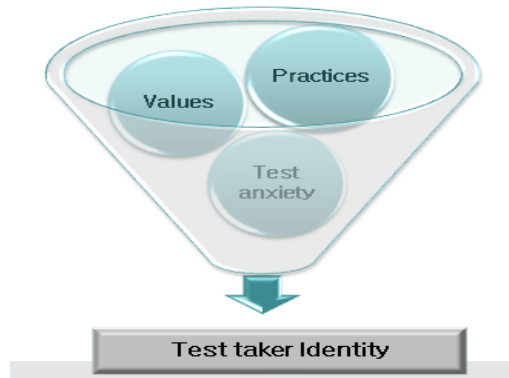


그림 2. 고부담 시험의 수험자 정체성 구성 단면

국내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환경에서 수험자들은 시험 준비 목적과 환경에 따라 특정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수험자 정체성 관점의 실제 시험 준비 사례 연구는 수험자 접근의 어려움으로 관련 문헌은 제한적이며 직장인-수험자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질적 연구로 수행된 Kim(2016, 2017a, 2017b)의 연구는 시험 준비 환경에서 공유된 목표, 신념, 가치, 지식 등을 습득하며, 시험 준비 문화와 수험자 정체성 유형을 보여준다. 대학입시준비-TOEFL 수험자 그룹은 장기간의 시험 준비가 지속되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점수에 의존하는 점수 정체성(score-mediated identity)을 나타냈으며, 취업 준비-TOEIC Speaking 및 OPIc 수험자 그룹은 스펙 중심의 정체성(spec-mediated identity)이 장기간의 취업 준비를 통해 강화되었으며, 전문직 유학 준비생-IELTS 수험자 그룹에게는 시험 준비 환경에서 요구되는 자기계발 및 전문가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이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각 그룹은 시험 준비가 지속되면서 시험 준비 환경에서 요구되거나 제시되는 수험자 정체성으로 강화되었다. 시험 준비는 단순히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목표 점수 획득의 수단이 아닌, 시험 준비 환경에서 공유된 가치, 신념, 목표 등의 학습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기 때문이다(Wenger 1998). 따라서 이미 고부담 언어 시험의 중요 맥락으로 형성된 기업 환경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직장인-수험자의 실제 시험 준비 경험과 시험 준비 환경에서 요구되고 형성되는 수험자 정체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험자 정체성을 그림 1과 그림 2에서 제시된 Kim(2013)의 고부담 언어 시험 영향으로 시험 준비의 세 가지 단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현장과 참여자

본 연구 현장은 기업 B로 기업 환경에서 영어 사용은 해외 고객들과의 영어 회의 혹은 해외 출장이 빈번하게 있으며 보통은 통역사가 영어 회의에 같이 참석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사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외국어 교육과정(영어, 중국어, 일어 및 한국어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는 기업 B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장인 5명으로 영어 말하기 능숙도는 중급 레벨(OPIc Intermediate)이다. 고부담 언어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사전에 특정 시험을 선정해서 해당 수험자를 의도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모집된 직장인-수험자이다. 참여자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으며 근무 연한은 최소 5년 이상이다. 수험자 A(연령대 40대)의 이전 영어 점수는 OPIc 중급(IM 2), 목표 점수는 OPIc 상급(AL)이며 시험 목적은 영어 실력 향상으로 업무 관련 영어 사용은 영어 회의 참여이다. 수험자 B(연령대 30대) 역시 이전 영어 점수는 OPIc 중급(IM 2), 목표 점수는 OPIc 상급(AL)이며 시험 목적은 구체적 영어 학습 목표 달성으로 업무 관련 영어 사용 정도는 영어 회의 참여이다. 수험자 C(연령대 40대)의 이전 영어 점수는 OPIc 중급-하(IL), 목표 점수는 OPIc 중급(IM 1)이며 시험 목적은 진급으로 업무 관련 영어 사용은 이메일 교환이다. 수험자 D(연령대 20대)의 이전 영어 점수는 OPIc 중급(IM 2), 목표 점수는 OPIc 중급(IM 3)이며 시험 목적은 진급으로 업무 관련 영어 사용 정도는 간헐적 해외 출장이다. 수험자 E(연령대 30대)의 이전 영어 점수는 OPIc 중급(IM 2), 목표 점수는 OPIc 중급(IM 3)이며 시험 목적은 진급으로 업무 관련 영어 사용 정도는 현재는 없으나 추후 해외 출장 시 가능하다. 기업 환경 상 참여자 요청으로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는 참여자 면담, 현장노트, 연구일지 등이 있다. 자료는 3개월 동안 수집되었으며, 전체 면담은 총 10회 이상으로 참여자당 평균 2회로 각 면담 시간은 40분에서 90분이내로 소요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 형식으로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에게 개인 정보(예: 나이, 부서, 직급, 직장에서 영어 말하기 사용 정도, 최근 영어 시험 응시 경험 등)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연구 질문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어떠한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는지(혹은 했는지) 그리고 시험 준비 목적과 목표 점수 등을 질문하였다. 기업 환경에서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것인지 시험 준비 맥락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험 준비 활동과 방법은 어떻게 수행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영어 말하기에서 어떠한 영향을

겪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영어 말하기와 관련하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질문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후에 전사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궁금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등은 표시하며 다음 면담을 위한 준비 자료로 정리되었으며, 후속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현장노트와 연구일지도 주요 연구 자료로 수집되었으며, 현장노트는 주로 면담 중에 작성되었고, 면담 후에 바로 현장에서 정리되었다. 연구일지는 현장노트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 관점으로 궁금하거나 의미 있거나 성찰되는 내용들로 작성 정리되었다.

연구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장기간 참여,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삼각망(triangulation)은 서로 연계되어(박종원 2006) 순환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면담 과정에서 작성된 현장노트는 면담 후 바로 현장에서 다시 정리되고, 이후 연구일지 작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전사된 자료에서 분석 되었으며, 후속 면담에서 다시 질문되고 확인되었다. 자료 수집 기간 이후에도 참여자들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와 학습에 관한 참여 및 관찰은 계속되었으며,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 문의, 연락, 면담 등으로 연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Bryman(2004)의 질적 분석 절차에 따라 녹음된 자료는 전사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워드 파일로 각 개인별로 정리하였다. 먼저, 여러 번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 구, 절 등을 표시하며 참여자 개인별로 시험 준비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후에는 Kim(2013)의 수험자 정체성 형성의 개념적 틀을 사용하여 참여자 시험 준비 단면에서 시험 준비 목적에 관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목표, 신념과 믿음으로 구성되는 가치(values), 실제 시험 준비 활동 그리고 그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준비 단면에서 수험자 정체성과 연관된 중요 단어, 구, 절 혹은 의미 등을 내포하는 부분에 표시하며 분석하였다. 참여자 개별 분석 이후에는 전체 참여자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참여자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과 부분적 혹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각 연구 질문 중심으로 주제어로 범주화하여 분석 정리 하였다. 결과에 나오는 각 범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기업의 고부담 언어 시험 환경에서 직장인이 준비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은 무엇이며 시험 준비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장인-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목적’으로 정리했으며, 이 단면의 하위범주가 되는 수험자 정체성과 관련된 특징은 ‘진급 및 인력 선발 지원자 되기’ 및 ‘글로벌 환경 인재 되기’로 정리하였다. 위의 하위범주는 시험 준비 목적에 관한 참여자들의 핵심 목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자는 진급과 인력선발을 위한 인력풀에 들어가는 지원자 되기이며 후자는 글로벌 직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자기개발 차원의 목표 정체성이었다. 연구 질문 2) “기업의 고부담 시험 맥락에서 직장인-수험자는 어떠한 시험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활동’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단면의 하위범주가 되는 수험자 정체성과 관련한 특징은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 시험 요령, ‘특정 시험 요령에 의존’, ‘시험 준비 문화’로 정리되었다. 연구 질문 3) “기업의 고부담 영어 시험 준비는 직장인-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영향'으로 정리되며, 하위범주로 '수험자 내러티브 정체성 상실', '낮은 언어 능숙도 정체성' 그리고 '시험 요령 한계'로 구분되었다.

4. 연구 결과

4.1 직장인-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목적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직장인-수험자들이 준비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은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시험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목적의 가치는 기업 맥락에서 시험 등급의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수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는 조직에서 제시하는 목표 등급 획득을 통한 '진급 및 인력 선발 지원자 되기'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인재 되기'로 직장인-수험자의 목표 정체성으로 구현되었다.

4.1.1 진급 및 인력 선발 지원자 되기

본 연구 현장에서 참여자 C, D, A는 시험 등급을 '진급과 인력 선발 등의 지원자가 되는 기회'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C는 진급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업무 환경에서 영어 사용 정도는 직접적인 영어 말하기 보다는 주로 이메일 교환이다. 5년 전 OPIc 중급-하(IL)를 받았던 C는 진급을 위해서 OPIc 중급(IM 1) 획득이 목표이다.

연구자: 목표 점수는 IM 1 이네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점수 인가요?

C: 그렇죠. 3년이 끝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3년이 작년에 끝났어요. 올해 따라 되요. IM 1 획득목표. 점수 따고서 3년 지나면 점수가 없어져서요.

연구자: 언제까지 따라 된다는 건 없나요?

C: 그거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진급을 할 때, 점수가 필요하니까, 진급하는 해가 아니면 바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내년에 진급하는 해예요.

같은 이유로 시험 준비하는 D의 경우, 업무 환경에서 영어 사용 정도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간헐적 해외 출장 시 필요하였다. 2년 전 OPIc 중급(IM 2)을 획득하였고 목표 등급은 OPIc 중급(IM 3)이다. 시험 등급은 진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각 직급에 따라 획득해야 하는 회사 자체 어학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

D: 이거(시험등급) 있어야 평가를 잘 주겠다 하는 데(부서)도 있어요. 무조건 있는 사

람한테만 주겠다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진급하는데, 직급에 따라 다른데, 사원은 D급만 따면 되고, 대리, 과장은 C급을 따라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따라야 진급하는 조건이 되는 건데, 사실 진급이 제일 중요하죠, 어차피 이 사람이 못 딸 거 같으면, 애초에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영어도 있어야 되는데, 평가만 있으면 어차피 못 올라 갈 거니까, 안주겠다 이거죠. (영어점수) 있는 사람만 줘서 올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없으면 줬자 소용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길 해요.

회사가 직급에 따라 제시하는 시험 등급은 ‘무조건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제공되는 해당 직급의 목표 정체성이기도 하였다. 인력선발에서도 시험 등급은 중요 조건이었다. A는 기업 환경에서 해외 주재원 및 영어 미팅 기회를 언급하며 과거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기 위해 어학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과거 2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목표 등급 획득을 위해 시험 준비했던 개인 경험을 사례로 근무 환경에서 외국어 시험 등급은 승진과 인력 선발 등의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A: 이것(회사에서 요구하는 등급)이 없으면 내가 주재원으로 가질 못하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승진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미팅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딸리게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등급은 A가 경험 할 수 있는 성공의 기회이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주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내가 승진 할 수 있는 기회’, ‘영어 회의에서 나를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점수 정체성(score-mediated identity)으로 작용하였다(Kim 2017a). 앞서 D가 진급을 위해서 회사 자체 직급별 목표 어학 등급이 있다고 설명했듯이, A는 인력 선발에서도 회사 자체 등급 조건의 충족 여부로 지원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됨을 설명하였다.

A: 동일한 직급에서 어떤 기회를 줄 때, 기본적으로 영어 등급이 있는가 아니면 고과 평가가 좋은가와 같이 그런 인력풀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어학 등급이 없다면 아예 이런 기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예 지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험 등급은 수험자의 영어 능숙도를 평가하는 기능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시험 등급의 의미를 실제적인 언어 능숙도를 반영하는 척도 이상의 지원자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즉, 회사에서 제시하는 어학 등급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어학 능숙도 이상의 조직에서 다양한 ‘기회를 갖는 지원자’ 그룹으로 선발됨을 의미하였다.

A: 등급은 실제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100프로는 아니죠. 등급과 다르게 실제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직접 영어로 그 사람(지원자)을 평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영어 등급이 몇 등급인가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출장을 보내야 할 때 혹은 어떤 기회를 줄 때, 그 선발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등급 조건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지는 나는 모르죠. 회사 입장에서는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본 연구에서 기업 맥락의 시험 등급 가치는 참여자들에게 생존과 성공을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회 가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진급에서는 조직 자체 직급별 어학 등급으로 지원자의 어학 평가가 진행되며, 인력 선발에서도 등급 조건의 충족 여부로 지원자 그룹에 선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험 등급이 갖는 가치는 조직에서 제시하는 ‘지원자’ 정체성의 중요 조건으로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목적으로 기능하였다.

4.1.2 글로벌 환경 인재 되기

본 연구에서 시험 등급은 글로벌 환경에 부합되는 인재 기준이기도 하였다. 진급을 위한 최소 등급을 이미 획득하였을지라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기개발 차원의 시험 준비를 하였다. A의 업무 환경에서 영어 사용은 영어 회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본 연구 현장이 되는 기업 B는 일반적으로 영어 회의에 통역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있는 A는 상급자 위치에서 자신이 직접 궁금한 것을 영어로 질문하며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 따라서 ‘영어 실력 향상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험 준비를 시작하였다. 2년 전 OPIc 중급(IM 2)을 획득하였고 목표 등급은 OPIc 최고등급인 상급(AL)이다.

연구자: 오픽 목표 점수가 1급이네요?

A: 회사에서 1급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는지 안 느는지를 체크를 못하겠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도 오픽이라도 있으면 등급을 따면, ‘아 내가 목표를 달성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B는 다른 참여자와 달리 토익 1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서 진급이나 인력 선발 등을 위한 영어 말하기 시험 등급이 필요하지 않았다. 회사 규정 상 정해진 년도 까지 획득한 토익 1등급은 인사제도와 관련한 영어 말하기 시험 등급 조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자로서 빈번하게 영어 회의에 참여하는 근무 환경에 있기에 꾸준한 영어 말하기 학습의 동

기가 높았다. 2년 전 OPIc 중급(IM 2)를 획득하였고 목표 등급은 참여자 A처럼 상급(AL)이다. B 역시 지속적으로 영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B: 일 년에 한두 번 보려고요. 근데, 저는 필기로 1등급(토익)을 해뒀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굳이 영어 어학점수가 따로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봤는데, 그래도 공부하려면 시험을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봤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해서, 토익은 1등급인데.

E는 현재 업무 환경에서 영어 말하기 사용은 크게 요구되지 않았고, 2년 전 OPIc 중급(IM 2)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목표 등급은 중급(IM 3)이다. 시험 준비 목적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험 등급 획득으로 회사 차원의 자기 개발 역량 강화 중의 하나인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이었다. 이미 진급을 위한 최소 영어 말하기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구자: 시험 준비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E: 회사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따기 위해서.

연구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E: IM3 하고 IH.

연구자: 그럼, 언제까지 따셔야 돼요?

E: 강제적 인건 아닌데, 빨리 따면 딸수록 좋겠죠.

연구자: 진급을 위해서는 3년 이내 이야기 하던데요.

E: 못 따면 불이익이 있거나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자기개발.

정리하면, 시험 준비 목적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시험 등급 가치로 진급, 인력 선발 등을 위한 생존, 성공의 기회와 자기개발 기준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들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목적이 취업을 위한 스펙 관리의 가치로 취업 준비-수험자 정체성으로 나타났다면(Kim 2016), 본 연구에서 기업 직장인들의 시험 준비 목적은 조직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 등급 가치로 조직이 추구하는 인력 되기-수험자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어학 1등급을 제외하면 3년 마다 어학 등급은 갱신해야 되었으며 직급마다 제시되는 목표 등급으로 진급 및 인력 선발 지원자 되기 그리고 자발적인 자기개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시험 등급의 가치는 글로벌 환경의 인재 되기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시험 준비 목적은 개인 수준에서 단순히 목표 등급 획득이 아닌 조직이 지향하는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2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활동

본 연구에서 직장인-수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시험 준비 활동은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 시험 요령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시험 요령 중심의 시험 준비 활동은 수험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였고 시험 불안감으로 ‘특정 시험 요령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준비 활동은 단기간 목표 시험 등급 획득을 위한 보편적인 ‘시험 준비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4.2.1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시험 준비 활동은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 시험 요령으로 시험 응시 및 답안 작성으로 구성되며 주로 시험 준비 교습을 통해 습득되었다. 공식적인 시험 응시 절차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컴퓨터 기반의 일대일 면대면 절차로 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능숙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험자는 먼저 사전설문(background survey)으로 신분, 거주지, 주제군(여가, 취미, 스포츠, 휴가, 출장 활동 선택)과 자기평가(self-assessment)로 문항의 레벨을 선택한다. 시험 사전설문에서 선택한 주제군을 기반으로 수험자의 개인 관심, 경험에 관한 단순묘사, 습관설명에서부터 과거경험 이야기 서술 과업이 주로 출제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시험 요령은 자신의 개인 정체성이 아닌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을 위하여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으로 사전설문 조사, 자기평가 문항 레벨, 주제군 등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D가 경험한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교습은 시험 응시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전설문의 시험 문항 주제 선택을 점수 획득이 용이한 주제군으로 이미 정해져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해진 주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답안이 관련 시험 문항과 함께 제시된다. 예를 들면, ‘영화, 공연, 여행’ 주제군에 시험 문항(예: 지난 주에 한 일)과 샘플 답안이 제시되고 단어만 조금씩 바꾸어 최대한 하나의 답안으로 여러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D: 설문조사를 일단 정해줘요. 무조건 정해진 대로 해서.

연구자: 무엇으로 가장 많이 하라고 하나요?

D: 겹치는 거. 이 질문에도 이 스크립트를 써먹을 수도 있고, 이 질문에도 이 스크립트를 써먹을 수 있게, ‘영화, 공연’이런 거를 겹치게 해서, ‘영화, 공연, 여행’ 이렇게 겹치게 해서 이 질문 나왔을 때, 단어만 좀 바꾸면 똑같은 걸로 다 말할 수 있게 해놔서,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스크립트 주고.

수업에서 말하기 활동은 예를 들면, ‘지난 주에 무엇을 했는지’ 제시된 시험 문항에 학습자들 각자 응답하게 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의 말하기를 중간 중간 교정해준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외우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는 강조가 되었다. 수업에서의 핵심은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항과 스크립 팁’의 전수였다. 예를 들면, 토픽과 상관없이 무조건 출제되는 문항은 ‘특별한 경험 서술’로 ‘범용적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을 모범답안과 함께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E가 경험했던 시험 준비 활동은 ‘시험 응시 팁’과 ‘스크립 돌려 쓰는 법’의 시험 요령 기반이었다. ‘스크립 돌려 쓰는 법’은 D가 언급했듯이 범용적으로 여러 주제에서 단어만 살짝 바꾸어 같은 샘플 답안으로 적용하는 법을 의미한다.

E: 그냥 오픽 관련 주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팁 같은 거. 스크립 돌려 쓰는 거. 이 주제가 나왔을 때에도 이렇게 조금 바꿔 쓰고, 이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 쓰고. 샘플답안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단어 바뀌도 똑같은 문장으로 쓴다 던가.

A가 경험한 시험 준비 활동 역시 시험 응시 및 샘플 답안 준비 요령 기반 이었다. 시험 응시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전설문 조사의 토픽 선택을 점수 획득이 용이한 주제군으로 그리고 수험자 신분은 ‘직업 없음’으로 선택하도록 수업에서 제시되었다.

A: 아시겠지만, 배경이 있잖아요. 서베이 조사. 이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직업 없음. 학생, 아니요. 저는 영화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가 같은 내용이겠죠. 여기서 6-7하구요. 음악 감상하기. 운동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무 꼬인다고요. 그 다음은 여행은 두 개를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휴가, 음악 감상, 취미, 공원, 해변, 영화, 콘서트로 했어요.

B가 경험한 시험 준비 활동 역시 시험 응시 요령 중심의 학습으로 이미 정해진 범주 안에서 관련 시험 문항들이 소개되고 제시되는 샘플 답안 암기로 진행되었다.

B: 문제가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나오고, 저희는 단기에 목표로 하는 점수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뭐 나오면 뭐하고, 카테고리를 딱 짚어서 그 주제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요런 부분만 다 외우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C가 경험한 시험 준비 활동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시험 준비 전략은 모범 답안 암기였다. 제시된 70개의 모범 답안이 수업 중에 설명되었으며 이후에는 암기 학습으로 집중하여 과

제 점검도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외웠는지의 여부로 진행되었다.

C: 지금 오픽 선생님이 요령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주시고(샘플답안) 외어와라. 그리고 나서 시키세요. 외운 거 똑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지적질 해요(웃음)

일반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활동은 모범 답안 암기이다(Fulcher 2010, Lumley and Stoneman 2000). 본 연구에서 밝혀진 참여자들이 경험한 시험 요령 중심의 활동은 모범 답안 암기뿐만 아니라 시험의 특징을 이용한 구체적인 요령들을 시험 준비 교습에서 연습하였다. 해당 시험 출제 방식은 개별 수험자 정체성을 반영하여 신분, 직업, 영어 능숙도, 관심 주제 등을 시험 응시 단계에서부터 수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별 수험자 정체성을 배려한 수험자 중심의 시험 출제 방식이 실제 시험 준비에서는 시험 의도와 다르게 점수 획득에 유리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으로 대체되어 제시되었다.

4.2.2 특정 시험 요령 의존

본 연구의 수험자들이 경험한 시험 준비 활동은 전체적인 틀과 강조되는 전략들은 같았지만, 시험 준비 교습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험 요령 내용은 달랐다.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여러 번 다른 시험 준비 교습을 경험했던 A와 C는 다른 시험 준비 내용으로 혼란스러워했다. A는 다양한 시험 준비 요령을 경험하면 학습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시험 응시 방식, 이야기 주제 선택, 모범 답안의 구성, 세부적인 시험 요령 등이 다르게 제시되니 오히려 혼란스러워하였다. 따라서 안정적 시험 준비를 위해서 특정 교습의 반복적 수행을 계획하였다.

A: 차라리 똑같은 선생님에게 두 번 듣는 게 익숙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방법이 너무도 틀리니까..헛갈리는 거예요.

연구자: 암기는 똑같구요?

A: 그쵸. 그런데 모범답안이 틀리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구요. 오픽 볼 때, 체크를 하는데 그 패턴부터 다른 거예요. 이야기 주제를 정할 때부터, 이걸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걸 꼬입니다. 그런 것부터 틀리고.

C의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 시험 준비 교습에서 모범 답안 암기가 요구되지만, 제시되는 모범 답안의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전과 다르게 현재 시험 준비 활동에서는 굉장히 긴 장문의 모범 답안 암기가 70개로 제시되기에 혼란스러워 하였다.

C: 제가 전에 오픽을 한달 들었거든요, 한 사이클. 그때 한 달인가? 한 달 반 들었는데, 그때는 되게(모범답안) 짧게 주셨어요, 스크립을. 지금 이 선생님은 스크립을 되게 길게 주시거든요, 70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맞는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C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장문으로 된 모범 답안 암기는 부담스럽고 과중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시험 준비 방법의 변경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A가 언급했듯이 이미 익숙해진 시험 준비법을 변경한다면 다시 새로운 방법을 학습해야 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연구자: 똑같이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요.

C: 맞아요.

연구자: 계속 그 수업 들으실 거예요?

C: 근데, 영어도 뭐든 바꾸면 안 좋거든요, 왜냐면 바꾸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지금 2달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연휴 있고, 빠지고 있고 해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답안을 구성하는 내용이 다양했기에 A와 C는 혼란을 겪었다. Ricoeur(2010)의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에서 그들의 시험 준비는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직접 서술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정해진 여러 가상의 내러티브 정체성으로 구성된 시험 요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험 요령 기반의 학습이 통용되고 있기에 수험자들은 이미 익숙해진 방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Kim 2016).

4.2.3 시험 준비 문화

본 연구에서 직장인-수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과도한 시험 요령 기반 중심의 시험 준비 활동은 단기간 목표 시험 등급 획득을 위한 보편적인 '시험 준비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험 준비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을 위한 시간대비 효율성의 가치로 판단하였다. D는 시험 준비 교재를 '오픽을 야매(비합법적인 방법)로 하기 위한 책'으로 자연스럽게 정의하였다.

D: 그 책이 오픽용 책이에요 책을 좀, 그러니까 오픽을 야매로 하기 위한 책이에요. AA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정말 오픽을 위한 책인데, 처음에 서베이도 이렇게 이렇게 골라라 되어있어요 그거 보고 넘어가고, 스크립도 영화별, 음악별, 상황별, 나눠져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은데 상황만 바뀐 거.

A 또한 시험 준비 ‘방법 자체가 왜곡’되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족집게 과외’를 통해서라도 등급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닌 시험 등급 획득이기에 방법에 대한 적절함 보다는 시간 대비 효율성을 가장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A: 근데 시험자체의 목적은 좋은데 그 등급을 따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고 빨리 따야 되니까.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는 1,2 달 해서 충분히 A, B 등급을 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족집게 과외를 우리가 받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B가 경험한 시험 요령 중심의 활동은 오로지 ‘단기 목표로 점수를 내야 하는’ 것으로 언급했다. C에게는 ‘시험 점수용’으로 ‘암기해서 잘하면 어쨌건 받는 것’ 즉, ‘요령’으로 정의하였다. 시험 준비는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닌 시험 등급 획득이 목적이기에 방법의 적절함 보다는 모범 답안 암기와 같은 시험 요령으로 점수 획득이 목표임을 설명하였다.

C: 오픽은 시험 점수용. 그러니까 외우고 있죠.

연구자: 주변에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픽은 대부분은 그렇게 시험 점수?

C: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크지 않을까요? 영어 말하기 늘리기 보다는, 암기해서 잘하면 어쨌건 받는 것. 뭐, 그쪽이 더 가깝죠, 요령.

결국, 직장인-수험자들은 시험 요령 중심의 시험 준비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시험 준비 방법이라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단기간 시험 등급 획득을 위한 ‘가성비’, 즉, ‘내가 투입한 것보다는 가치를 빨리 뽑아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은 참여자 예시이다.

목적자체가 다른 거죠. 영어실력 향상이 아니라 시험등급을 따기 위한 거죠.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가 내가 투입한 것보다는 가치를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 가성비.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시험 준비 활동은 공통적으로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험 준비 방법에서 제시되는 수험자 정체성은 가상의 수험자, 즉, 가상의 내러티브 정체성으로 구성된 시험 요령이었다. 내러티브 정체성은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성찰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인 이야기 활동을 통해서 구성된다(Ricoeur 2010). 이러한 이야기 활동은 참여자들이 준비하는 시험의 주요 과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험자 개인의 내러티브

정체성으로 구성되는 시험 준비 활동이 아닌, 시험 응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고 서술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험 응시 전략들이 시험 교습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제시되었다. 개인 내러티브 정체성이 고려되지 않은 시험 준비 활동에 대해 참여자들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법 그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그들의 시험 준비 활동이 이미 공유된 시험 준비 문화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4.3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영향

본 연구에서 시험 준비가 직장인-수험자의 영어 말하기에 끼친 영향은 수험자 개별 영어 말하기 학습, 내러티브 및 영어 능숙도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모범 답안 작성과 암기에 의존하는 시험 준비 활동은 자가 학습(self-study)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험 준비에 쏟은 노력, 시간, 에너지에 비하여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서술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자신 없는 영어 말하기 활동이 되었다.

4.3.1 수험자 내러티브 정체성 상실

시험 요령 중심의 시험 준비 활동은 자가 학습으로 지속되어 모범 답안 작성과 암기 의존으로 정형화 되었으며, 개인 내러티브 정체성 상실로 나타났다. 내러티브 정체성은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직접 서술하면서 형성된다(Ricoeur 2010). 여러 시험 준비 교습을 경험했던 A는 수업 종료 후 스스로 샘플 답안들을 서로 비교하며 ‘더 좋아 보이는 답안’으로 수정하기를 반복하였다. 수집된 샘플 답안들을 정리하며 가장 최적의 모범답안으로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이후에는 답안 암기로 연계하였다. 하지만 실제 말하기 연습은 진행되지 않았다.

A: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저는 스크립만 정해지면 그것 갖고 듣고 수정하고 그런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나만의 모범답안을 찾기 위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즉, 샘플 답안들을 모으고 만드는 거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어요. 오픽 강의를 듣다 보면 “어 저 스크립이 더 좋아 보이네” 하면서 또 바꾸고, 그냥 나중에 시험 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쉬이고 하나라도 100프로 제대로 하면은 성적이 더 잘나올 수 있을 텐데.

C에게 있어서 시험 준비는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닌 진급을 위한 시험 등급 획득이 목적이기에 모범 답안 암기와 같은 시험 요령 기반 활동을 지속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과 현재의 시험 준비 교습에서 다르게 제시되는 시험 준비 전략으로 혼란스러워하였고, 나중에

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암기로 “잘못된 공부법으로 하고 있는 거 같다”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당장 시험 날짜가 임박해오니 시험 불안감으로 익숙한 방법인 수십 개의 장문으로 된 모범 답안 암기를 계속 하였다.

E는 자가 학습 시 시험 준비 교습에서 학습한 여러 주제에 적용하는 샘플 답안 중심으로 자신의 모범 답안을 작성하며 암기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모범 답안 그대로 똑같이 외워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대신 머릿속으로 말할 내용을 생각한 후에 연습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즉흥적인 개인 경험 중심의 영어 말하기 연습이 아닌 모범 답안 내용 중심으로 연습하는 한계를 보였다.

E: 처음에는 암기를 하려다가, 모범답안들을 제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걸 다 외우는 건 힘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정도 생각하고 말로 연습하고. 시험 응시 했을 때 조금 연습해요.

시험 과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야기 서술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감정, 생각, 의도, 반응, 성찰 등의 건강한 내러티브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이다(김나희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단기간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시험 준비는 나의 경험이 아닌 가상의 내러티브(이야기)들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구술하는 요령을 습득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자가 학습에서 계속되고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개인 내러티브 정체성이 상실 되고 있었다.

4.3.2 낮은 언어 능숙도 정체성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활동은 개별적으로 샘플 답안 수집, 모범 답안 작성 그리고 암기와 같은 자가 학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실제적인 말하기 연습이 아닌 답안 작성 중심의 암기 연습은 시험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시험 과업이기도 한 자신의 경험을 구술하는 내러티브 서술에 대해서 수험자들은 샘플 답안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자신 없는 영어 능숙도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언어 능숙도 정체성(language proficiency identity)은 수험자가 인식하는 언어 능숙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정체성으로 수험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 능숙도를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수험자는 언어활동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언어 능숙도 정체성을 보인다(Lazaraton and Davis 2008).

A는 시험 준비에 쏟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시험 수행을 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경험이 아닌 샘플 답안 중심의 암기는 효과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샘플 답안을 암기한 후, 시험장에 갔지만 생각도 잘 안 나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다 보니 천천히 어색하게 서술하게 되었다. 그리고 암

기된 답안으로 시험 문항이 똑같이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돌발질문에서는 더욱더 당황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A: 대부분 외워서 갔는데, 외워서 간 것은 안되겠더라고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을 해야지 외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외워서 IM 3등급은 쉽게 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 아니더라고요. 계속 암기하다 보니까, 천천히 띄엄띄엄 이야기하고 중간에 기억 안 날 때도 있고.

시험 준비가 지속되면서 A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와 학습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영어 말하기로 나타났다. 즉흥적으로 자신이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한 경험이 없기에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자신감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A: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안 나오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게 제가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머릿속에는 단어도 있었고 문장도 있는데, 막상 하려면 헛갈리는 거예요.

E의 경우에도 정형화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E: 누구나 겪는 현상인 건 알고 있기는 한데,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맴돌고, 아는 단어도 생각도 안 나고, 아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B의 경우에도 영어 말하기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강세, 억양, 발음, 어휘, 이야기 서술 등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라고 언급하였다. D의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힘들어하였다.

D: 내가 말하려고 하면은 문법에 맞게 못 말하겠어요. 들었을 때는 어, 이상한데, 이렇게는 되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면, 말해놓고 틀리면 아는 거죠. 문장 만들기 어려워요.

본 연구에서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활동은 직장인-수험자들의 기대처럼 단기간 목

표 등급 획득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험 준비가 지속될수록 자신의 경험이 아닌 샘플 답안 중심의 암기로 일관하다 보니 시험장에서 돌발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Lazaraton과 Davis(2008)의 수험자 언어 능숙도 정체성에서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서 직장인-수험자들이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에 쏟은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자신의 실제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문장 구성과 표현에서도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4.3.3 시험 요령 한계

결국, 직장인-수험자들은 시험 요령 기반의 활동으로는 실제적인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이 어렵고 학습 의욕 저하를 경험하며 시험 요령 기반 학습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어 능숙도 향상을 위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시험 등급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A는 개별 면담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학 시험 준비 활동을 “이제는 나의 실제 말하기 능력 향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학습”하고 싶다고 하였다. B는 경험했던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활동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요런 부분만 다 외우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없어서 수업 잘 안 들어갔어요”라고 설명하며 “암기하지 않으며 영어 말하기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C는 기존의 모범 답안 암기 시험 준비 활동에서는 요령을 배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픽은 오픽대로” 하면서 동시에 “영어를 잘하고 싶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돌발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하였다. D와 E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영어로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시험 준비를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회화 실력이 향상되면서 오픽 시험 등급 향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 날짜가 임박해오자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이 절실한 수험자의 경우에는 시험 불안감으로 쉽사리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영어 학습 지속 여부를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가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참여자 예시이다.

다들 최소 B급은 받으려고 하는 거죠. B급까지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요. 근데 A급은 계속 쭉욱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승진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없으면 승진 자체가 안 돼요 우리 회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영어 수업에 들어와서 무엇을 느낄까? ‘저렇게 해서 오픽 따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개별 면담에서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던 E는 이후에 다시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A도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대비반을 수강하였다.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이 절실 할수록 시험 불안은 높아지면서 익숙한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활동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반면 B는 단기간 시험 등급 획득이 아닌 영어 능숙도 향상 목표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목표 점수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직장인-수험자들이 경험한 시험 요령 기반 활동은 이야기 서술 과업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경험, 감정, 생각, 의도, 반응, 성찰과 같은 수험자 자신의 내러티브 정체성 기반의 구술활동(김나희 2019)이 아닌 가상의 내러티브 정체성으로 구성된 모범 답안 학습으로 자가 학습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개인 내러티브 정체성 상실은 실제적인 영어 능숙도 향상을 저해하며 직장인-수험자가 기대했던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에도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험 과업인 이야기 서술에서 즉흥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구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 없는 영어 말하기로 낮은 언어 능숙도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결국, 직장인-수험자들은 시험 요령 기반 학습의 한계를 경험하며, 실제적인 영어 능숙도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말하기 학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수험자 개별 내러티브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시험 등급 가치가 수험자에게 주는 결정적 영향으로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은 영어 학습 지속 여부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시험 날짜가 임박해오자 일부 수험자들은 시험 불안감으로 다시 시험 요령 기반 활동을 재계 하기도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직장인의 고부담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경험을 중심으로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특징과 수험자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질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기업 직장인들이 경험한 영어 말하기 시험은 OPIc 시험 준비로 나타났으며, 시험 준비 목적은 조직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표 등급 가치와 지향하는 인력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진급과 인력 선발과 같은 인사제도에서 직급마다 제시되는 목표 등급은 ‘지원자 되기’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자기개발 기준인 시험 등급 가치는 ‘인재 되기’로 참여자들의 시험 준비 목적이 되었다. 즉, 직장인의 시험 준비는 개인 수준에서의 어학능력 검증 혹은 등급 획득이라기보다는 성공과 생존을 위한 조직이 인정하는 시험 등급을 보유한 인력 되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둘째, 시험 준비 목적과 관련된 시험 등급 가치는 시험 준비 활동에 영향을 끼치면서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의 시험 요령이 시험 준비 문화로 형성되었다. 시험 요령은 크게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답안 작성의 방식으로 구성되며 시험의 특징들을 이용한 시험 응시 단계부터 수험자 신분, 직업, 이야기 주제군 등의 선택

을 미리 설정된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으로 학습되었다. 시험 교습마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모범답안은 참여자들에게 혼란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고 특정 시험 요령에 의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수험자들은 이러한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 활동을 적절하지 않은 시험 준비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등급 가치가 개인에게 끼치는 결정적 영향으로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을 위한 시간대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셋째,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의 시험 요령의 영향은 자가 학습에도 지속되어 모범답안 작성과 암기 의존으로 정형화 되었으며, 이는 수험자 내러티브 정체성 상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험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이러한 시험 요령 기반의 시험 준비는 실제 목표 등급 획득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시험 요령에만 충실하다 보니 참여자 스스로 언어 능숙도는 향상되지 않고 시험 과업인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는 영어 내러티브를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자신 없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낮은 언어 능숙도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험자들은 시험 요령 기반 학습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언어 능숙도 향상을 위하여 영어 말하기 학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험 등급 가치가 개인에게 끼치는 결정적 영향이 단기간 목표 등급 획득으로 그리고 시험 요령 기반의 활동이 시험 준비 문화로 이미 형성되었기에 이러한 시험 준비 환경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특히,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험 불안감으로 시험 요령 기반 활동을 재계 하기도 하였으며 영어 학습 지속 여부의 기준은 단기간 시험 등급 획득 성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시험 준비 환경에서 제시되고 공유되는 직장인-수험자 정체성을 정리하면, 1) 시험 준비 목적에 관한 목표 시험 등급 가치는 생존과 성공을 위하여 조직에서 인정하는 시험 등급을 보유한 인력 되기 정체성으로, 2) 실제 시험 준비 활동에서 직장인-수험자들이 습득하고 있는 수험자 정체성은 점수 확보에 유리한 가상의 신분, 영어 레벨, 시험 문항 주제군 선택 그리고 모범 답안 숙지였다. 수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시험 준비 활동이 아니기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갈등에도 결국에는 시험 응시 요령 중심의 시험 준비 문화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3) 시험 준비가 지속되면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구술하는 개인 내러티브 정체성이 위협받으며 실제적인 영어 말하기 능숙도 향상 보다는 영어 말하기 자신감 하락과 같은 낮은 언어 능숙도 정체성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시험 요령 학습의 한계를 경험하며 수험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구술하며 자신을 반영하는 수험자 개인의 내러티브 정체성에 충실한 시험 준비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단기간 목표 시험 등급 획득이 절실한 수험자의 경우에는 다시 기존의 시험 준비 환경에서 제시하는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의 시험 요령을 학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시험이 사용되는 특정 맥락에서 작용하는 시험 결과 의미와 가치는 시험 준비 환경과 방법을 결정하며 그러한 시험 준비 환경에서 제시되고 요구되는 수험자 정체성이 학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Kim 2013, McNamara and Roever 2006, Shohamy 2001). 본 연구에서 해당 시험 준비가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여 단순히 목표 점수 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험자 정체성 관점에서 기업 맥락의 치열한 생존과 성공을 위한

목표 정체성으로 시험 등급 가치가 수험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험자에게 제시되는 목표 등급 가치는 조직에서 설정된 것으로 이것에 부합하는 인력이 되기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개인적 목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험 준비 활동은 모범 답안 암기뿐만 아니라 해당 시험 출제 방식을 이용한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 기반의 시험 응시 요령 학습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활동은 단기간 목표 시험 등급 획득을 위하여 시험 준비 문화인 '타인'에 의해서 작성된 언어,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며 시험에서 요구하는 실제 수험자 기반의 신분, 직업, 언어, 경험, 생각, 신념, 믿음 등과 같은 수험자 개인의 정체성은 반영되지 못하게 한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업무 환경에서 이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시험 준비 활동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시험 준비 환경에서 요구되는 가상의 수험자 정체성으로 대체되었다. 수험자 정체성 관점에서 이러한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는 단순히 목표 시험 등급 획득의 수단이 아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하며 관심 있는 주제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어 말하기로 실제 개인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언어 학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험자 경험에 집중했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수험자 개별 정체성 및 기업 맥락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공개에 있어서 참여자 요청으로 본 논문에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고부담 언어 시험 준비 현장에서 수험자 접근의 실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가 기여하는 점은 기존의 학교 맥락이 아닌 기업 현장에서 시도된 시험 준비 탐색 연구로 해당 시험 준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실제 직장인-수험자의 시험 준비 경험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직접적인 시험 사용자인 수험자 정체성 관점에서 시험이 어떻게 사용, 준비,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시험의 타당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 준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고부담 언어 시험(준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수험자 정체성 및 사회적 영향은 이미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McNamara and Roever 2006, Shohamy 2001).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실제 수험자의 시험 준비 경험과 시험(준비)의 영향에 관한 사례는 여전히 부족하다.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되는 고부담 언어 시험 사용 환경과 목적에 따른 공유된 시험의 가치, 시험 준비 활동, 시험 준비 영향 등이 집단적인 시험 준비 문화로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시험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수험자 정체성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가 보고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나희(Kim, N. H). 2019. 글로벌 기업의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

- 램 실행연구: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으로(Action research on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storytelling programme in a context of high stakes language test preparation: From narrative identity).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1, 165-193.
- 박종원(Park, C. W). 2006. 『영어교육과 질적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오성호·김보영(Oh, S and B. Kim). 2015. 글로벌 기업의 영어 공용화 정책을 통한 변화 관리 전략(Change management strategy through the English common language project of a global company: The case of digital appliance company in LG Electronics). 《경영교육연구》 (*Korea Business Review*) 18-4, 1-33.
- 홍수민(Hong, S). 2018. 삼성전자, 외국어 말하기 1등급 취득해야 임원 승진심사.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333211>에서 2018년 2월 1일에 검색했음.
- Block, D. 2009. *Second Language Identities*. London: Continuum.
- Bryman, A. 2004. *Social Research Meth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lcher, G. 2010. *Practical Language Testing*. London: Hodder Education.
- Green, A. 2007. *IELTS Washback In Context: Preparation for Academic Writing in Higher Education* (Vol. 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lek, C. 2003. Preparing for high-stakes testing. *Theory into Practice* 42(1), 42-50.
- Kim, N. H. 2013. *Impact of English speaking test preparation on Korean test takers' identit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35th LTRC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Seoul, Korea.
- Kim, N. H. 2016. Korean test takers' TOEIC-Speaking and OPIc test prepara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2(3), 51-76.
- Kim, N. H. 2017a. Exploring Korean students' high stakes TOEFL preparation for domestic university admi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9), 431-455.
- Kim, N. H. 2017b. A study on adult learners' IELTS preparation from a English-mediated identity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9(1), 83-111.
- Lazaraton, A. and L. Davis. 2008. A microanalytic perspective on discourse, proficiency, and identity in paired oral assessment.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5(4), 313-335.
- Lumley, T. and B. Stoneman. 2000. Conflicting perspectives on the role of test preparation in relation to learning? *Hong Kong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5(1), 50-80.
- McNamara, T. and C. Roever. 2006. *Language Testing: The Social Dimension* (Vol. 1).

-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OPIC 2017. http://www.opic.or.kr/senior/certi/opic_brochure_2017.pdf에서 2018년 1월 4일에 검색했음.
- Ricoeur, P. 2010. *Time and Narra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ohamy, E. 2001. *The Power of Test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Uses Of Language Tests*. London: Longman.
- Spolsky, B. 1997. The ethics of gatekeeping tests: What have we learned in a hundred years? *Language Testing* 14(3), 242–247.
- Weir, C. J. 2005. *Language Testing and Validation: An Evidence-Based Approach*. Basingstoke: Palgrave.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an, Y. and Z. H. Wan. 2014. Dynamic nature of washback on individual learners: The role of possible selves.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39(7), 329–329.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영어(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성인(Tertiary)

김나희(Kim, Nahee)
 연구원(Researcher), 영어영문학과(Department of English)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E-mail: mission52jk@gmail.com

논문 접수(Received): 2019년 8월 9일 (August 9, 2019)
 논문 수정(Revised): 2019년 9월 10일 (September 10, 2019)
 게재 확정(Accepted): 2019년 9월 19일 (September, 19, 2019)